

太平洋時代に 있어서의 太平洋圈 觀光의 展望과 濟州道와 하와이州의 役割

金 太 永
(濟州專門大學·觀光學)

目 次	
I. 序 論	IV. 太平洋圈 觀光의 今後課題
II. 太平洋時代의 到來	V. 太平洋時代に 있어서의 濟州道
III. 太平洋時代に 있어서의 太平 洋圈 觀光의 展望	와 하와이州의 役割
	VI. 結 論

I. 序 論

다가오는 21世紀는 「太平洋의 世紀」로 예견되고 있다. 예전의 地中海와 大西洋 못지 않게 人類史에 기록될 太平洋의 世紀가 과연 올 것인가.

금세기초에 루즈벨트政權에서 美國務長官을 지냈던 존헤이는 「地中海는 과거의 바다, 大西洋은 현재의 바다, 太平洋은 미래의 바다」라고 말했다. 그 때로부터 80여 년이 경과한 오늘 그 미래가 도래하여 太平洋時代의 동이 트고 있다.

최근 세계경제의 중심이 東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하면서 太平洋 協力論議가 활발해짐에 따라 「太平洋의 世紀는 올 것인가」를 두고 학자와 정치인, 경제인들의 논의가 한창이다. 한편에서는 「太平洋時代는 이미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편에서는 「太平洋時代라는 것은 과장된, 또 너무나 성급한 表現」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理由로서, 前者는 세계경제활동의 중심이 大西洋의 연안으로부터 太平洋의 양안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들고 있고, 後者는

人種, 宗教, 文化, 國民所得 水準 등의 면에서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동체로 상정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아시아의 太平洋 沿岸國들은 발전된 산업사회라고 할 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하였고, 太平洋을 사이에 두고 美大陸과의 去來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1980년에 美國과 太平洋地域의 交易量은 大西洋沿岸의 유럽國家들과의 交易量을 처음으로 앞질렀으며, 1983년에는 美國의 太平洋貿易이 300억 달러로 大西洋貿易을 24%나 상회하였다.

太平洋圈의 貿易도 확대되어 1979년에는 2,750억 달러이었던 것이 그 3년후인 1982년에는 3,520억 달러로 늘어나 太平洋圈內 여러 나라 貿易의 55%를 圈內國으로의 輸出이 점하게 되었다. 또한 太平洋圈內 여러 나라의 貿易總額이 유럽共同體內 여러 나라의 그것을 상회하여 1982년에는 世界貿易總額의 $\frac{1}{3}$ 에 달하였다.

貿易의 伸張과 더불어 다른 經濟活動도 확대되고 있다. 旅行分野에서도 太平洋圈으로의 觀光客數가 증가하고 있다. 아세안諸國의 伸張이 가장 두드러져,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4배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太平洋의 새로운 산업국인 韓國, 臺灣, 홍콩과 라틴아메리카의 太平洋沿岸國으로의 觀光客數가 같은 기간에 3배로 늘어났으며, 中國도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과거 5년간 그 觀光市場이 비약적으로 신장하였다.

觀光收入도 근래들어 극적인 伸張率을 보이고 있다. 1980년 太平洋圈의 觀光收入은 1970년에 비해 4배로 증가하였다.圈内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그 증가율이 상당히 높지만 특히 韓國, 臺灣, 인도네시아, 구아테마라의 4個國은 같은 기간에 1,000%라고 하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 太平洋沿岸國들의 經濟가 성장한 것만 가지고 太平洋時代가 도래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 歷史의 時代가 전개되는데 있어서의 經濟關係만이 아니라 文化的 同質性 내지는 共有關係가 필요하다고 본다. 太平洋圈은 人種, 宗教, 文化, 國民所得의 水準 등의 면에서 매우 이질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유럽共同體와는 달리 하나의 共同體로 상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圈內國家들의 經濟的 水準의 向上은 자국내의 文化를 향상시키고, 다른 民族, 다른 文化間에 인간관계의 改善을 촉진시켜 주며, 經濟의 發達は 交通, 通信의 發達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서로간에 이해를 증진시켜 줄 것이다.

太平洋圈¹⁾에 있는 沿岸國들과 島嶼國들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人類社會의 發展에 기여

1) 太平洋沿岸國이라고 말하지 않고 太平洋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표현이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太平洋沿岸諸國이라 함은 문자 그대로 太平洋沿岸에 있는 나라들만을 가리키는 것이며, 太平洋에 점재하는 島嶼國은 제외된다.

이들 島嶼國들 가운데는 피지, 佛領폴리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 솔로몬諸島, 西사모아 등 세계 유수의 리조트觀光地들이 있으며, 특히 南太平洋의 島嶼國들은 우수한 觀光地로서의 전체조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포함한 것으로 太平洋圈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음.

하는 참다운 意味의 太平洋時代가 도래하려면 경제적 협력관계에서 일보전진하여 文化의 相互理解 내지는 共同關係로 진전시켜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근래에 와서 太平洋沿岸의 아시아諸國은 東洋文化의 體質위에 西洋文化를 받아들여 어느 정도까지는 西洋文化를 이해하고 있고, 美國도 東洋文化를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太平洋時代가 올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²⁾

더우기 觀光은 예로부터 다른 文化를 전달하는데 媒介로서의 機能을 다하는 데에서 사회적, 문화적 효과를 발생시켜 왔다. 오랜 歷史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 다른 나라의 文化나 產物은 旅行者와 함께 다른 나라로 건너간 일이 많았다.

觀光이 즐거움을 위한 旅行이고, 여행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그 旅行에서 얻어지는 知識과 經驗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며, 또 내방한 旅行者를 통해서 서로 다른 文化에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코뮤니케이션手段이 발달한 현대에 있어서는 觀光이 文化를 전달하는 機能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사람들의 行動樣式 등은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하여지는 性格을 갖고 있기 때문에, 觀光의 사회적, 문화적 效果 가운데 국제 왕래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는 國際親善效果는 그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다.

오늘날 觀光은 世界平和의 原動力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것은 現代觀光이 개발사업을 통하여 세계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사람들의 해외관광을 도와줌으로써 國際親善과 相互理解를 촉진하고, 각 나라사이에 존재하는 각종 장벽을 제거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하고 있기 때문이다.

觀光의 歷史를 돌이켜 볼 때 에게海와 地中海의 沿岸國들이 古代觀光을 번성시켰고, 大西洋沿岸國들이 近代와 現代觀光을 발전시켰다. 地中海時代의 주역은 아테네 등 그리스의 都市國家와 로마帝國이었으며, 大西洋時代의 주역은 近代史에서 자유주의와 산업혁명을 이룩한 英國, 프랑스 그리고 美國이다.

그런데 太平洋時代의 개막과 더불어, 예전의 地中海와 大西洋에 못지 않게 관광사에 기록될 「太平洋觀光의 時代」가 올 것인가 太平洋圈의 觀光振興이 궁극적으로 太平洋沿岸國들과 島嶼國들이 이룩하려는 太平洋共同體를 건설하는 데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등 太平洋時代에 있어서의 太平洋圈의 觀光을 전망해 보고 濟州道와 하와이州的 役割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 이 발표의 목적이다.

2) 趙文富, 「太平洋時代에 있어서의 濟州道の 位置와 그 開發方向 攷索」, 濟州大學校 社會發展研究所(濟州道와 하와이간의 島嶼地域開發協力), p.48

II. 太平洋時代의 到來

21世紀는 세계경제활동의 중심이 大西洋의 兩岸으로부터 太平洋의 兩岸으로 옮겨짐으로써 大西洋國家들이 종래 누려왔던 역사상의 지위가 亞·太國家들에 의해서 자리바꿈되는 「太平洋의 世紀」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이 世紀는 곧 太平洋時代의 開幕을 의미한다.

이처럼 다가오는 21世紀가 太平洋時代의 시작으로 예견되고 있는 理由는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 먼저 人口比重, 産業化에 힘입은 國民所得의 증가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다양하고 광역적인 이 지역의 국가들을 21世紀의 太平洋共同體의 概念으로 상정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交易量의 增大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美國과 캐나다의 서해안은 경제적 번영에 있어 이미 동해안을 추월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점은 西太平洋연안에 韓國, 日本, 中國, 홍콩, 臺灣,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泰國,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10개국이 있다는 사실이다.

韓國, 홍콩, 臺灣 및 싱가포르는 아시아新興工業國(NICS)³⁾으로 불려왔으며, 때로는 「4마리의 작은 龍」이라고까지 칭해져 왔다. 필리핀, 泰國,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는 東南亞國家聯合(ASEAN) 국가들로, 싱가포르와 부르나이를 제외하고 간단히 「아세안 4」로 불린다. 이들 국가들은 지난 20년동안 괄목할만한 經濟的 成長과 繁榮을 이룩했다.

지난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 日本은 10% 이상의 경제성장률로 온 세계를 놀라게 했고, 1960년대에는 韓國, 홍콩, 싱가포르, 臺灣 등의 아시아 NICS가 日本과 비슷한 성공을 거두었으며, 지난 '71년 이래 中國 역시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률로 발전하고 있다. 「아세안 4」국들도 뒤늦긴 하지만 그들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泰國는 분명히 잠재능력을 강력한 힘으로 전환시켜 왔기 때문에, 곧 아시아의 다섯 번째 NICS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이 권내국가들의 상호 交易比率은 63%로 유럽共同體(EC)의 51%를 크게 상회하고, 世界交易量의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共同體는 지금까지 알려진 지역공동체 중에서 통합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太平洋연안국들도 經濟交易만 본다면 유럽共同體 못지 않은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는 접착제를 발견한 셈이다. 그러나 太平洋지역은 人種, 宗教, 文化, 國民所得水準 등의 면에서 유럽共同體와는 달리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

3) 1979년 經濟協力開發機構 보고서에서 先進國들이 韓國 등 10개 工業國을 新興工業國家群(NICS)으로 호칭한 데서 비롯되어 계속 사용해왔는데, 「臺灣, 홍콩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中國의 압력으로 지난 6월 토론토會議에서부터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등 소위 아시아 新興工業國들을 新興工業經濟地域(NIES)로 부르기로 했으나 이에 상관없이 종전대로 부르기로 한다.

에 이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 상정된다는 데는 회의론도 없지는 않다.

太平洋과 大西洋을 경계짓고 있는 美國과 캐나다가 太平洋쪽으로 기울어 太平洋의 世紀를 말하게 된 이유도 주로 交易量 때문인데, 美國과 太平洋지역의 交易量이 美國과 大西洋연안의 유럽국가들과의 그것을 능가하기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이다. 따라서 에드윈 라이샤워 美하버드대의 명예교수를 비롯한 석학들은 이러한 美國의 交易量的 逆轉現象을 가리켜 大西洋으로부터 太平洋時代로의 전환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太平洋의 世紀가 개막되는데는 政治·軍事的인 背景이 먼저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차世界大戰을 전후한 強大國政治의 形勢變化가 결과적으로 경제교역량의 비중을 바꿔 놓았다는 점이다.⁴⁾

大西洋時代의 대단원을 상징하는 指標는 1941년 루즈벨트 美大統領과 처칠 英首相이 大西洋상의 한 英國함상에서 회담, 발표한 8개항의 「大西洋憲章」으로 이것이 종전후 UN의 이념적 기초가 되었다.

이후에도 유럽復興計劃(마샬플랜), 1962년 케네디 大統領의 大西洋共同體構想과 關稅一般協定(GATT), 1974년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의 大西洋宣言 등은 모두 大西洋時代를 나타내는 指標들인데 대부분 정치·군사적인 대결을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다.

이에 비해 太平洋時代는 '70년대 日本의 經濟的 繁榮과 1979년의 美·中共修交, 그리고 韓國, 臺灣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가들의 등장 등에서 읽을 수 있듯이 卞利, 데탕트 그리고 후진국 국민들의 經濟開發에의 意志라는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무르익었다. 이러한 亞·太地域의 긴장완화는 올해의 서울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짐으로써, 韓·中, 韓·蘇關係가 새롭게 전개되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太平洋時代를 다지기 위한 지역협의체로는 太平洋經濟協力會談(PECC)을 비롯 太平洋貿易開發機構(OPTAD), 太平洋經濟協議會(PBEC) 등이 있지만 이 가운데서 가장 활동적인 것은 1980년 9월 濠洲의 캔버라에서 발족한 뒤 현재 역내 주요국인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PECC이다.

본래 1980년도에 들어오면서 韓國, 日本, 濠洲가 선도하다가 1984년에 美國의 레이건 行政府가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하면서 확대된 太平洋共同體의 協議는 蘇聯의 참여 없이는 이 지역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견해에 따라 蘇聯도 1984년 11월 밴쿠버에서 열린 5次總會에서부터 옵저버로서 참석을 허용하고 있다.

美國이 軍事力을 축소화하고 經濟力회복에 진력함으로써 改革(페레스트로이카)과 블라디 보스토크宣言의 고르바초프路線과 결합할 경우, 美·蘇데탕트는 그 앞날이 밝다고 보며, 경

4) 金在洪, 『「太平洋時代」가 열린다』, 東亞日報社 創刊 68돌 特輯, 1984.4.1

우에 따라서는 蘇聯의 PECC 加入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될 경우 「太平洋의 世紀」는 전례없는 美, 日, 中, 蘇의 協力體制 위에 人類社會의 黃金期로 피어나게 될 것이며, 南·北韓의 對話, 交流 그리고 統一의 길도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볼 때 美國, 日本, 아시아 NICS, 그리고 中國이 環太平洋圈에 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世界經濟의 求心點은 스페인과 英國中心의 大西洋世紀에서 太平洋世紀로 옮겨가고 있음이 틀림없으며, 太平洋時代, 21世紀를 주도할 역내국가로는 美國, 日本, 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등 선진 5개국,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NICS와 거대한 잠재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中國,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東南亞國家聯合의 6개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韓國, 臺灣의 民主化와 人權問題, 泰國,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경제, 정치, 사회적 落後性 등이 이 지역의 世紀的 浮上에 족쇄가 되고 있고, 美國과 日本, 그리고 日本과 여타 아시아開途國간의 극심한 貿易不均衡으로 인해 자못 심각한 不確實性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不確實性 아래서도 아시아NICS와 中國을 비롯한 東南亞開途國들의 급속한 工業化는 세계경제의 더욱 폭넓은 多樣化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太平洋沿岸國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交易量의 增大만 가지고 太平洋時代가 도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太平洋沿岸國들이 人類社會의 福祉增進에 기여할 참다운 의미의 太平洋時代를 도래케 하려면, 경제적인 협력관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文化的 相互理解 내지는 共同體關係로 진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太平洋地域은 人種, 宗教, 文化, 國民所得 水準 등의 면에서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에 이 地域이 하나의 共同體, 곧 太平洋共同體관계로 진전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經濟的 水準의 向上은 자국내의 文化를 향상시키고 다른 民族, 다른 文化間에 人間關係의 개선을 촉진시켜 주며, 經濟의 發達은 交通, 通信의 發達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서로 理解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요컨대, 文化的 相互理解를 위해서 西洋文化의 선구적 位置에 있는 美國과 東洋의 太平洋沿岸에 선진적 位置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日本, 韓國, 臺灣, 홍콩, 싱가포르 등이 經濟的, 文化的 交流를 확대시킨다면 太平洋時代는 반드시 올 것이며, 그것은 東西洋을 각기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人類文化의 向上을 위한 黃金期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Ⅲ. 太平洋時代に 있어서의 太平洋圈 觀光의 展望

1. 太平洋圈 觀光의 成長趨勢

국제관광에 관한한, 시장점유율에서 볼 때 太平洋圈의 觀光量은 아직 大西洋圈의 觀光量을

능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世界的 交易量과는 달리 世界的 觀光량은 逆轉現象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나 그 성장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伸張勢를 나타내고 있어 멀지 않아 「環太平洋 觀光의 時代」가 도래할 可能性을 시사하고 있다.

世界觀光機構(WTO)의 통계에 따르면, '80년대 중반에 들어 선진 각국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가에 힘입어, 1987년 國際觀光部門은 1985, 1986년 水準과 비슷한 연 4%의 成長을 기록하여 國際觀光客이 3억 5,500 만명에 달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금세기말에는 國際觀光客이 5억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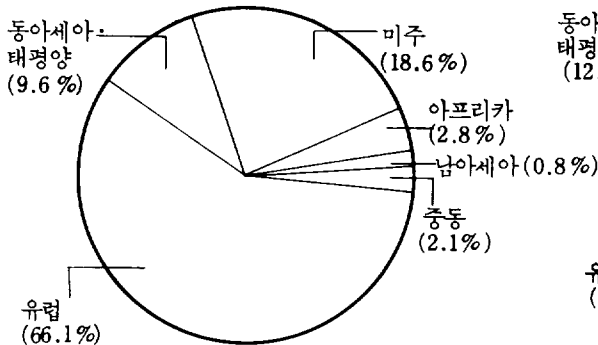
國際觀光收入은 1986 년보다 16.1% 증가한 1,500 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1977 년의 거의 3배나 되는 수준이다. 비록 1986 년만큼의 높은 成長을 나타내지는 못했으나, 1987 년의 國際觀光客과 國際觀光收入의 伸張은 다같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지역별로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곳은 西太平洋地域(東아시아·太平洋지역), 아프리카, 유럽地域이다.

세계의 국제관광객수에 입각한 地域別 市場占有率에 있어서는 1982 년에서 1987 년 사이에 큰 변화는 없었다. 아프리카, 美洲, 東아시아·太平洋지역의 占有率이 늘어난 반면에 유럽과 中東지역의 점유율은 약간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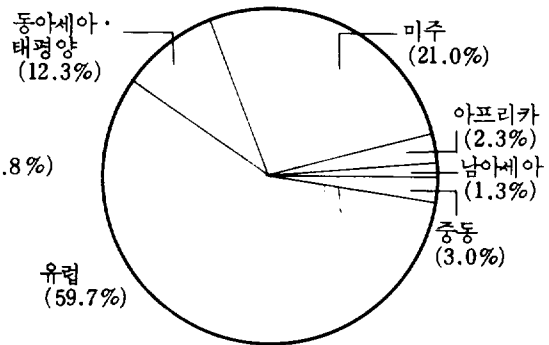
한편 觀光收入의 경우, 東아시아·太平洋지역과 유럽은 같은 기간에 收入이 증가한 반면에 여타지역은 전체 觀光收入 가운데 占有率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먼저 1987 년 현재로 太平洋圈의 觀光량과 大西洋圈의 觀光량을 시장점유율에서 비교해보면, 다음 도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太平洋圈은 西太平洋지역(東아시아·太平洋지역) 9.6%, 東太平洋지역(美洲지역) 18.6%로서 전체의 28.2%를 점유하고 있어, 西大西洋지역(美洲지역) 18.6%, 東大西洋지역(유럽지역) 66.1%로서 전체의 84.2%를 점유하고 있는 大西洋圈에 비해 $\frac{1}{3}$ 정도에 상회하고 있을 뿐이다.

[圖表 1] 국제관광객수 (1987)



[圖表 2] 국제관광수입 (1987)



자료: 세계관광기구(WTO)

그리고 觀光收入에 있어서도, 다음 도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太平洋圈은 西太平洋 지역(東아시아·太平洋지역) 12.3%, 東太平洋지역(美洲지역) 21.0%로서 전체의 33.3%를 점유하고 있어, 西大西洋지역(美洲지역) 21.0%, 東大西洋지역(유럽지역) 59.7%로서 전체의 80.7%를 점유하고 있는 大西洋圈에 비해 $\frac{1}{2}$ 에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太平洋圈에 있어서 觀光의 成長趨勢를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西太平洋地域(東아시아·太平洋지역) 국가들의 1987년 國際觀光客은 3,400만명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3.8%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82년보다 69%나 대폭 신장한 것이며 이에 따라 西太平洋지역은 국제관광 성장에 있어서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國際觀光收入도 185억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1982년에 비하면 92%나 대폭 신장한 것이다.

그리고 1987년에 東太平洋地域(美洲지역) 국가들을 찾은 國際觀光客數는 6,600만명에 달하여 전년보다 5.2% 증가했는데, 이는 1982년보다 30% 증가한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美洲를 찾는 觀光客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美國과 캐나다간의 觀光客交流는 예년과 같은 수준이지만 北美에서 유럽과 日本관광객의 증가는 현저하다. 그리고 카리브海地域은 유럽인 觀光客이 계속 증가하여 1987년에는 크게 호황을 보이고 있으며, 中·南美지역도 전반적으로 北美나 유럽으로부터의 관광객이 증가하였다.

한편 東太平洋地域(美洲지역)의 國際觀光收入도 8.0% 증가하여 315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것은 1982년보다 약 25% 증가한 것이다.

太平洋圈 觀光의 成長趨勢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事實은 西太平洋地域의 국가들을 방문한 外來客의 증가율에 관한 것이다. 앞서서도 말한바와 같이 1987년에 이 地域의 각국을 방문한 外來客의 數는 약 3,400만명으로 세계전체의 9.6%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를 유럽의 66.1%, 美洲의 18.6%와 비교하면 상당히 뒤떨어진 數值지만 각 지역이 수용한 外來客의 과거 10년간의 成長趨勢에서 보면, 西太平洋地域이 3.9배, 中東이 2배, 아프리카가 1.8배, 南아시아가 1.5배, 유럽이 1.4배, 美洲가 1.2배 증가한 것으로 西太平洋地域의 成長率이 단연 높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太平洋圈의 觀光量은 최근에 와서 현저히 신장하고 있는데, 특히 西太平洋地域은 東太平洋地域보다 괄목할만한 伸張勢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와 같은 伸張勢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太平洋圈의 觀光量도 21世紀에 가서는 交易量과 마찬가지로 市場占有率에서 大西洋의 觀光量을 능가하여 逆轉現象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2. 太平洋圈 觀光産業의 成長展望

美國의 未來學者인 허만·칸이 「21世紀에는 太平洋地域의 日本 및 新興工業國들이 국제 관광의 中心的 役割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太平洋圈의 觀光産業은

새로운 발전의 時代를 맞이하고 있다.

太平洋圈의 觀光産業의 成長이 예견되는 理由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

첫째, 商用 및 觀光目的의 圈内旅行이 활발해지고 있다.

圈内 新興工業國(NISC) 들의 경제성장에 따른 각국의 所得水準, 生活水準의 향상으로 商用 및 觀光目的의 圈内여행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는 美國人, 日本人, 캐나다人, 濠洲人, 英國人 등이 太平洋지역의 주된 여행자가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예견되는 亞·太 각국의 經濟成長에 따라 圈内 新興工業國의 國民을 중심으로 하는 圈内 여행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나라별로 해외여행자의 人口比를 살펴볼 때, 유럽선진국들은 대체로 40%선에 달하지만 아시아지역은 홍콩, 싱가포르가 20% 전후, 뉴질랜드와 濠洲가 10% 전후, 臺灣과 日本이 4%선, 그 밖의 圈内국은 2% 이하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그러나 亞·太지역은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럽에 비할 때 지리적인 불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추세에 편승, 멀지 않은 미래에 유럽제국의 水準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太平洋地域의 航空路線이 빠른 속도로 증설, 증편되고 있다.

太平洋지역의 잠재성을 중시한 大航空會社들이 太平洋횡단 航空路線에 진출함으로써 이 지역의 航空路線이 빠른 속도로 증설, 증편되어 亞·太 각국을 행선지로 하는 觀光量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팬·아메리칸航空을 대신하여 보다 넓은 네트워크를 가진 美國의 유나이티드航空이 太平洋횡단 항공노선에 진출, 노선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항공이지만 항공여객수송인원으로 세계 6위인 日本의 全日本航空이 처음으로 太平洋路線에 진출하였고, 유나이티드航空 외에도 美國의 대형항공사들이 잇달아 태평양노선에 진출할 예정으로 있다.

따라서 앞으로 太平洋路線은 기존의 노스웨스트 航空, 大韓航空, 日本航空, 기타 각국의 국적항공사와 더불어 이들 새로 진출하는 航空社들의 각축장이 됨으로써 과거 大西洋횡단 항공노선과 마찬가지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항공사들에 의해 새로운 市場開拓이 이루어지면서 亞·太지역을 행선지로 하는 觀光活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世界的인 大型호텔·체인 및 아시아의 호텔·체인들이 체인·호텔을 건설하고 있다.

힐튼, 웨라톤, 홀리데이·인, 라마다·인, 메리디언, 웨스틴, 클럽·메디터레이니언 등의 세계적인 大型호텔·체인 및 팬·패시픽, 닛포, 프린스·호텔즈, 샹그리·라 등의 아시아의

5) 韓國觀光公社, 「觀光情報」 200호, 「太平洋觀光의 現況과 展望」, pp.3~6

호텔체인들이 太平洋지역의 주요도시, 주요관광지에 잇달아 체인호텔들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도 우수한 觀光호텔業體들이 美州 및 中共, 東南亞 등에 호텔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大韓航空은 현재 앵커리지에 건설하고 있는 것 외에 마닐라에도 건설할 계획이고, 호텔롯데는 로스앤젤레스에, 大宇그룹의 힐튼호텔은 北京, 上海 등에, 호텔新羅는 하와이와 방콕에, 그리고 世宗호텔은 로스앤젤레스에 각기 대상지역을 모색하고 있다.

네째, 大型 國際會議室 및 多目的 展示施設이 이 지역의 주요도시에 건설되고 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대형 國際會議室 및 다목적 展示施設이 太平洋지역의 주요도시에 건설되고 있는 한편, 각국 政府가 대규모 國際會議, 國際交易展, 國際行事 및 인센티브·투어 유치에 전례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1988년 서울에서 世界올림픽이 개최되고, 같은 해 濠洲의 브리스베인에서 國際레저博覽會가 개최되며, 그밖에 각 도시에서도 각종 國際行事가 개최될 계획으로 있어, 권내는 물론 北美, 유럽으로부터 대량의 觀光客誘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太平洋地域經濟協議會(PBEC)에 의한 권내 觀光開發의 促進이다.

권내 각국의 民間部門의 유대강화를 통하여 각국간 經濟關係를 촉진하고, 권역 전체의 經濟·社會發展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美國, 日本, 캐나다, 濠洲, 뉴질랜드 등 선진 5개국에 의하여 1968년에 창설된 후, 韓國, 臺灣 등 7개국을 정회원으로, 아세안諸國, 홍콩, 太平洋島嶼國 및 中·南美的 諸國 등을 준회원국으로 20여 개국이 가입한 太平洋地域經濟協議會는 현재 太平洋共同體를 확립하여 권내국가들의 균형있는 經濟成長 및 資本, 技術, 物資의 移動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동협의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觀光事業은 太平洋地域에서 가장 중요한 産業이며, 앞으로 成長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권내 觀光開發의 促進을 도모함으로써 觀光이 경제사회에 進歩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여섯째, 中國의 開放政策에 따른 中國旅行 붐이 太平洋圈의 觀光發展에 미치는 影響이다.

방대한 觀光資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30년 동안이나 外國人의 入國을 제한하여 선별적인 입국만을 허용해오던 中國이 최근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요 외래객 송출국에 대한 外來客 誘致活動에 적극적으로 힘을 기울임에 따라 中國旅行붐이 일어나면서 太平洋圈의 대부분 국가들이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상당한 이득을 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太平洋圈의 觀光産業은 최근에 들어 새로운 需要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要因들이 이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또한 국가별로는 다소의 등락이 있다하더라도 장기적, 전체적으로는 여타지역과 비교할 때 두드러진 성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IV. 太平洋圈 觀光의 今後課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太平洋圈의 觀光은 최근에 와서 觀光量이 현저히 신장되고 있고, 觀光産業도 새로운 需要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어, 그 成長展望은 매우 밝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太平洋圈의 觀光을 가속적으로 진흥시켜 다가오는 太平洋時代에 있어서 인류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太平洋共同體를 이룩하는 데 기능케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課題들이 선결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모두 논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만 요약해서 설명해 보기로 한다.

첫째, 觀光産業에 대한 政府의 支援態勢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권내, 권외의 人的 交流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권내의 개발도상에 있는 各國 政府가 觀光産業을 중요한 産業으로 평가하여 여타의 중요한 産業과 동등하게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마다 觀光産業에 대한 支援의 형태가 다르겠지만, ① 觀光査證 發給手續의 간소화, ② 觀光 基盤施設의 擴充, ③ 出入國審査의 신속화, ④ 觀光客에 대한 優待措置, ⑤ 觀光客에 대한 應待方法 지도, ⑥ 觀光宣傳活動의 강화 등에 관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비자발급에 관한 문제만 하더라도 太平洋諸國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유럽諸國에 비해 대단히 불편하다. 유럽共同體(EC)에 거주하는 사람은 역내의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 비자는 물론, 旅券도 휴대하지 않고 여행을 하고 있다.

太平洋地域에 있는 空港의 混雜도 여행의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 각 空港측에 따르면 혼잡의 정도가 이미 한계에 달했다고 한다. 旅行客이 권외의 보다 조건이 좋은 觀光地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지나친 혼잡상태를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觀光을 진흥하고 권내외의 人的 交流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交通, 通信, 上·下水道 등의 公共서비스 施設이 갖추어져야함은 물론이고, 관광과 관련되는 制度의 改善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

둘째, 권내의 人的 交流를 확대하기 위한 方案을 상호 강구하는 문제이다.

太平洋地域은 人種, 宗教, 文化, 國民所得 水準 등의 면에서 매우 異質的인 要素가 많은 곳이다. 觀光客에 있어서는 이러한 異質性이 觀光魅力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각국간에 여러 가지 면에서 格差가 있기 때문에 나라마다 추구하는 이슈가 다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太平洋經濟共同體 등을 통하여 이 권역의 각국이 공동작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많다. 어떤 나라에는 利益이 되는 일이 어떤 나라에는 不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觀光, 특히 圈内 相互旅行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圈内 각국의 相互理解를 제고키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 하는 것이다.

圈内의 相互理解의 重要性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나위도 없는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상호간에 접촉할 수 있는 새로운 旅行商品의 企劃이 필요하다. 그러한 패키지·투어로서 들 수 있는 것은 ① 靑少年層의 海外修學旅行商品과 ② 老人層의 海外旅行商品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姊妹都市⁶⁾의 擴大에 의한 相互交換訪問이라든가, 國際交流基金⁷⁾에 의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文化交流事業을 행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우호친선을 촉진시키는 방안들이 있다.

다음 世代의 主役이 될 젊은이들의 視野를 넓히는 것은 국제화를 지향하는 太平洋권역의 각국으로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 각 나라에서는 학생들의 海外旅行을 체험토록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젊은이들의 최초의 海外旅行을 가급적 太平洋圈내의 國家를 행선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太平洋圈 旅行을 통해 젊은 學生들이 아시아 隣近諸島 및 島嶼國과 자신들의 연대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海外修學旅行商品을 개발하는 데는 濠洲와 日本간에 체결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Working Holiday Program) 協定⁸⁾을 보다 역내 각 나라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制度 외에도 워크·스터디 (Work Study) 制度⁹⁾의 확립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海外旅行商品의 개발외에도 老年層의 海外旅行商品을 개발하는 것도 필

- 6) 나라를 달리하는 都市 상호간에 文化的 交流, 留學生의 交換, 行事 등의 개최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盟友市라는 약속을 서로 나누는 것을 말하며, 政治的인 意味는 없으며 英語로는 시스터·시티스(Sister Cities)로 호칭되고 있는데 美國에서 먼저 활동이 시작되었다.
- 7) 日本外務省의 國際交流基金法에 의하여 1972년에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日本에 대한 諸外國의 理解를 깊게하여 國際相互理解를 증진함과 동시에 國際友好親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國際文化의 交流事業을 효율적으로 행하여, 이것으로 하여금 世界文化의 向上 및 人類의 福祉增進에 공헌하는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8) 이 협정에 의해서 발급되는 査證(visa)은 觀光査證이 아니며, 입국후 반년간은 어떠한 직업에도 취직할 수 있는 制度로서, 그 취득조건은 왕복항공권과 현지에서 1개월간 생활할 수 있는 資金을 소지하고 있으면 된다. 濠洲와 日本간에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1980년에 시작된 이 制度에 參加者는 이미 4,500명이 넘었다. 이 制度에 의하여 양국의 젊은이들이 강한 유대감보다 넓은 世界觀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 制度가 太平洋圈의 각국으로 확대·채용된다면 이 지역의 協力關係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9) 開發途上國으로부터 先進國으로 유학을 간 學生들은 유학목적지에서의 生活費가 모국에서의 그것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授業料와 生活費의 일부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경우 留學生의 學費와 生活費를 벌 수 있도록 就職의 機會를 부여하는 制度임.

요하다고 본다.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이른바 人口의 老人化現象이 나타나고 있어, 老年層이 과거에 비해 건강하고 발언력이 있는 그룹이 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향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예를 들면 訪問地에 있는 老人들과 會晤를 갖는 패키지·투어를 개발한다면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太平洋圈內를 一周旅行할 수 있는 環太平洋 패키지·투어를 개발하는 문제이다.

太平洋圈은 세계의 어느 곳보다도 多樣性이 많은 지역이다. 韓國人, 日本人, 발리섬의 住民, 멕시코人, 佛領 폴리네시아人 등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은 文化, 傳統, 言語, 宗教, 人種의 寶庫라 할 수 있다.

觀光事業에 있어서는 이러한 多樣性은 觀光地의 豐富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觀光客에게는 훌륭한 觀光魅力이 되고 있다. 따라서 太平洋圈을 일주여행한다는 것은 大西洋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것보다 분명히 매력적인 旅行이 될 것이다.

다가오는 太平洋時代에 있어서 「環太平洋觀光의 時代」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太平洋에 있는 沿岸國과 島嶼國들을 편리하게 일주여행할 수 있는 旅行商品의 개발이 중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날의 旅行業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운송기관이나 숙박시설을 알선하던 旅行斡旋의 時代를 벗어나서 旅行業者의 아이디어에 의하여 사전에 운송기관이나 숙박시설 등을 구매하고 企劃商品을 생산하여, 이것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와 같은 旅行商品은 주로 團體旅行에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요즘은 旅行社의 구체적 商品化가 적용되어 個別旅行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패키지·투어가 개발되고 있다.

航空機의 大型化에 수반하여 세계적인 경향으로서, 금후 團體旅行은 점점 융성화의 길을 걸을 것이 예상되며, 또한 觀光遊覽船에 의한 團體旅行도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 航空機에 의해서는 觀光遊覽船에 의해서간에 太平洋圈內에 있는 沿岸國(島嶼國 포함)들은 太平洋을 일주하는 旅行商品을 개발하여 團體旅行客의 유치증강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지역으로 유치하는 데 성공만한다면 때로는 많은 觀光客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유치상의 효과는 큰 것이다. 특히 旅行業者가 주최하는 環太平洋 패키지·투어는 團體旅行의 경우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太平洋圈內의 地域을 目的地로 실시하고 있는 몇 개 旅行社의 패키지·투어 商品들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太平洋圈內를 일주여행하는 環太平洋 패키지·투어는 없으나, 대체로 다음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東部아시아, 東南아시아, 오세아니아(南太平洋 포함), 北美, 中南美 등 지역별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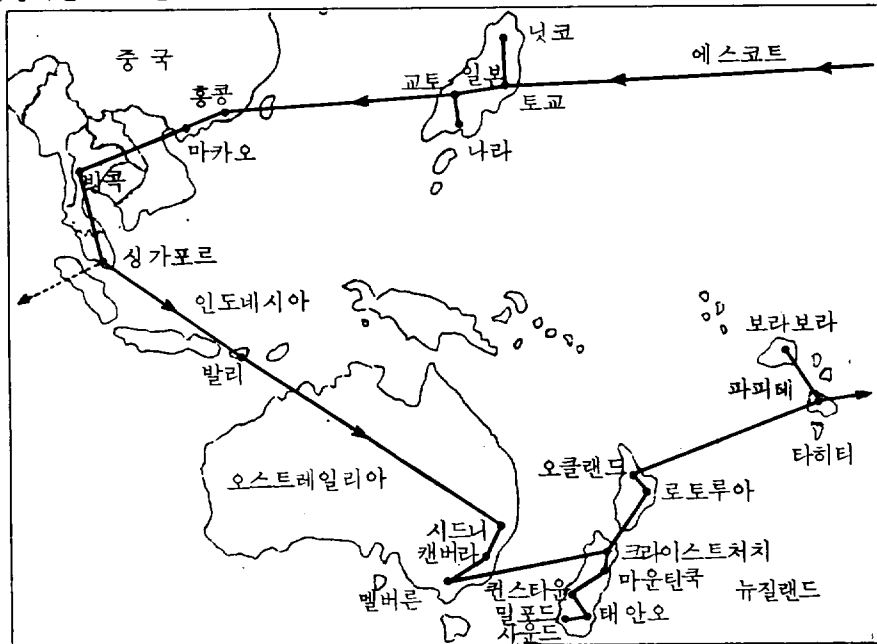
이와 같은 理由는 航空機의 路線上의 연결관계와 각종 利用施設의 手配上의 諸般問題도

< 表 1 > 太平洋地域의 팩키지·투어 (우리나라)

旅程 地域	KAL 월드 투어		훼미리 투어		나드리 투어	
	日 本	日本 旅行 (5 日間)	₩874,000	日本 핵심旅行 (6 日間)	₩ 1,030,000	日本 유람선旅行 (6 日間)
臺 灣·日本			臺灣·日本旅行 (5 日間)	₩ 816,800		
臺 灣·홍콩	臺灣·홍콩旅行 (4 日間)	₩533,000				
東 南 亞	東南亞 5 개국 (13 日間)	₩ 1,603,000	東南亞 5 개국 (10 日間)	₩ 1,283,000	東南亞 5 개국 (13 日間)	₩ 1,387,000
南 太 平 洋	南太平洋 旅行 (13 日間)	₩ 3,020,000	南太平洋 旅行 (13 日間)	₩ 3,080,000	南太平洋 旅行 (12 日間)	₩ 2,840,000
中 南 美	中南美 旅行 (19 日間)	₩ 3,426,000	中南美 一周旅行 (19 日間)	₩ 3,600,000	中南美 一周旅行 (18 日間)	₩ 3,393,000
北 美	美國 旅行 (10 日間)	₩ 1,678,000	美國·캐나다旅行 (16 日間)	₩ 2,632,000	美國 一周旅行 (17 日間)	₩ 2,727,000

[圖表 3] 오리엔트·사우드·패시픽·투어

여행기간: 36 일 여행비용: 6,395 달러 인원수: 24 명



있지만, 많은 所要日數에 따른 經費負擔 등의 問題로 그 需要層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처럼 우리 나라의 경제가 계속 성장하여 所得이 증가되고, 勤勞時間이 단축되어 餘暇時間이 많아지게 되면, 아마도 '90년대 들어가서는 사정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현재 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오리엔트·사우드·페시픽 투어 (Orient South Pacific tour) 商品일 경우에는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여 東아시아, 東南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南太平洋 포함)를 거쳐 36일간에 6천3백95달러로 일주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코스에서는 太平洋圈 가운데서 北美와 中南美지역만 제외되고 있다 (圖表 3 참조).

이 팩키지·투어에 제외된 美國, 캐나다 그리고 中南美 코스만 연결하여 日程을 조정한다면 1개월 정도의 旅程으로 太平洋圈을 일주하는 環太平洋 팩키지·투어의 실시가 가능하다고 본다.

V. 太平洋時代に 있어서의 濟州道와 하와이주의 役割

濟州道와 하와이주는 모두가 太平洋圈내에 위치하여 각기 독특한 文化와 異國의인 情緒를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섬들이다. 濟州道는 극동에 위치해 있고, 하와이群島는 北美쪽에 가까운 太平洋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입지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각기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해 왔다.

그러나 하와이주는 太平洋의 眞珠라 불리고, 濟州道는 極東의 하와이라 불려진다. 그 말은 하와이주가 太平洋의 眞珠라면, 濟州道는 극동의 眞珠라는 뜻인데, 그렇게 불리는 것은 단지 하와이주가 太平洋 한가운데, 濟州道가 극동에 위치해 있는 太平洋圈내의 섬들이라는 일반적인 관계에서만은 아닌 것 같다. 거기에는 다른 섬들과의 사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어떤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본다.

이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은 太平洋時代의 開幕을 앞두고, 이들이 장차 太平洋共同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同伴者로서 각기 어떠한 役割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歷史的인 經驗에 입각하여 모색해 보는 것도 매우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韓國은 太平洋쪽으로 돌출된 하나의 半島이긴 하지만 中國大陸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太平洋國家로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大陸性으로 적응된 社會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韓半島와는 달리 濟州島는, 하와이주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大陸에서 멀리 떨어져, 歷史적으로 소외된 地位에 있었기 때문에, 그 自身 文化的, 生態學的 同質성을 오늘날

까지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며, 本土와는 달리 유일하게 海洋的이며, 太平洋的인 特質을 간직하고 있다.

이처럼 濟州島와 하와이群島가 그러한 同質性과 特質을 많이 보존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事實은 매우 중요한 點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한 點은 각자의 立地的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文化의 交叉點에 위치해 있으면서 서로 다른 文化를 연결시키는 役割을 해왔다는 事實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와이群島는 太平洋의 중심에 위치하여 東洋文化와 西洋文化를 잇는 架橋的인 역할을 해음으로써 人類文化의 福祉增進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리고 극동에 위치한 濟州道도, 비록 하와이州가 한 것처럼 충분하지는 못하나 北方大陸文化와 南方海洋文化를 잇는 架橋的인 役割을 해왔다.

이제 다가올 可能性이 높은 太平洋時代를 맞이하여 濟州道와 하와이州는 韓國과 美國이 太平洋圈內에서 다른 國家들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적 고리로서의 役割을 다할 것으로 보는 바, 그러한 文化的 連繫는 北方大陸文化에 뿌리를 두고 있는 韓國이나 아틀랜틱文化에 뿌리를 두고 있는 美國에겐 太平洋進出에 그야말로 귀중한 礎石이 될 것이다.

근래에 와서 濟州道를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政府主導型으로 종합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太平洋時代に 있어서 韓國政府가 濟州道를 太平洋圈으로 진출하는 주요한 橋頭堡로 만들려는 데 있으며 그와 같은 發想은 韓國을 太平洋圈의 대표적인 文明國 가운데서 선도적인 中樞機關으로 만드는 것이 장차 유익하다고 판단된 데 있다. 다시 말하자면 世界經濟의 중심이 東아시아쪽으로 이동하면서 太平洋協力에 관한 論議가 활발해짐에 따라, 美國政府가 마치 하와이群島를 太平洋進出의 橋頭堡로 개방해온 것처럼 濟州道를 개방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濟州道와 하와이州는 다같이 다가올 太平洋時代に 있어서 韓國과 美國이 太平洋舞臺로 진입하기 위한 前進基地로서의 새로운 意味가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바야흐로 地政學的인 變化의 時代를 맞이하면서 韓國과 美國은 太平洋쪽을 향하여 濟州道와 하와이州라는 關門을 활짝 열고 있다. 그러나 유의해야만 할 것은 物理的인 開放만으로 太平洋共同體의 會員으로서의 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文化的, 政治的, 經濟的 連繫가 그속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바라는 바 자리는 설정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이나 美國은 그 文化의 뿌리에서 볼 때 아직도 文化的으로는 太平洋共同體와 친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濟州道와 하와이州는 大陸에서 멀리 떨어져, 異國的인 情緒와 天惠의 自然環境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本土人들에게 休息과 레크리에이션 에어리어(recreation area)로서

인식되어 있으며, 멀리 海外로부터도 많은 旅行者들이 메지어 들어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原住民의 대부분은 開發의 成果로부터 흔히 배제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들 祖上傳來의 生活터전마저 팔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觀光은 이미 이 두 섬 모두에게 가장 알맞은 産業部門으로서 住民의 文化的 生活水準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文化的인 相互作用과 交換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方法 가운데 하나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강조해 두어야 할 점은 開發事業을 추진함에 있어서 탐욕스러운 觀光企業家와 그들이 유지하는 觀光客들의 口味에만 맞게 개발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이들 두 섬이 간직하고 있는 同質性과 特質을 이들로부터 뺏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아름다운 景觀을 독점하여 高級호텔이나 別莊을 짓고, 海邊을 메워 판다는 식의 開發行態는 環境으로서의 自然에 깊이 새겨진 人間生活에 香氣가 되는 鄉土景觀이나 歷史景觀이 새로운 觀光對象으로서 높이 평가되는 경향에 역행될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同質性과 特質을 없애버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韓國이나 美國이 太平洋 文化共同體와 제휴할 수 있는 基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제 韓國이나 美國은 太平洋이라는 새로운 現場을 향해 門을 활짝 열고 있다는 事實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새로운 方向에서 본다면, 濟州道와 하와이주는 韓國과 美國이 개방해야 할 마지막 邊境이 아니라 太平洋共同體를 향해 나가는 첫 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끝으로 말해 둘 것은 濟州道와 하와이주와의 關係는 未來를 향한 새로운 太平洋關係이며, 각자가 자체적인 開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협력한다면 太平洋時代에 있어서 文化的 連繫는 강화될 것이며, 太平洋時代는 汎太平洋圈을 향해 열릴 것으로 본다.

VI. 結 論

다가오는 21世紀는 「太平洋의 世紀」로 예견되고 있다. 예전의 地中海時代와 大西洋時代에 못지 않게 人類史에 기록될 太平洋時代가 과연 올 것인가.

따라서 太平洋時代가 온다면 汎太平洋圈의 觀光은 어떻게 발전할 것이며, 장차 이룩해야 할 汎太平洋共同體의 建設에 어떤 寄與를 할 것인가를 전망해 보고, 아울러 汎太平洋圈내에 함께 위치하고 있는 濟州道와 하와이주는 그러한 汎太平洋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각기 同伴者로서 어떠한 役割을 수행할 것인가를 歷史的 經驗에 비추어 모색해 보았다.

오늘날 世界 經濟活動의 중심이 大西洋의 兩岸으로부터 太平洋의 兩岸으로 옮겨짐에 따

라, 21世紀는 大西洋圈內의 國家들이 종래 누려왔던 歴史上의 地位가 太平洋圈內의 國家들에 의해 자리바꿈 될 「太平洋의 世紀」가 될 것으로 본다.

이처럼 다가오는 21世紀가 太平洋時代의 始作으로 예견되는 理由로서는 太平洋圈內에 있는 國家들이 人口比重, 産業化에 힘입은 國民所得의 增加 등을 들 수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다양하고 광역적인 이 지역의 국가들을 21世紀의 太平洋共同體의 概念으로 상정시킬 수 있게 하는 근거는, 무엇보다도 世界의 交易量 가운데서 太平洋圈의 交易量이 大西洋圈의 交易量을 능가함으로써 逆轉現象을 가져오게 한 이 지역 국가들의 經濟成長에 따른 交易量의 增大에 있다.

물론 太平洋共同體가 전개되는 데는 經濟關係만이 아니라 文化的 同質性 내지는 共有關係가 필요하다고 본다. 太平洋圈은 人種, 宗教, 文化, 國民所得 水準 등의 면에서 異質의인 要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유럽共同體와는 달리 하나의 共同體로 상정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단지 太平洋圈內의 沿岸國들의 經濟가 성장한 것만 가지고 太平洋時代가 도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太平洋圈內에 있는 沿岸國들의 성장하는 정치적, 경제적, 比重들의 관점에서 살펴 본다면, 이제 太平洋時代의 開幕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太平洋이라는 現場은 곧 전세계의 의미심장한 中心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太平洋圈內에 있어서 國際觀光의 現況을 살펴볼 때, 그 市場占有率에서 太平洋圈의 國際觀光量은 아직 大西洋圈의 觀光量을 능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世界의 交易量과는 달리 世界의 觀光量은 逆轉現象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 성장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伸張勢를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 太平洋圈內의 觀光産業이 새로운 需要를 창출하는 要因들이 나타나고 있어, 太平洋時代의 開幕과 더불어 예전의 地中海時代와 大西洋時代에 못지 않게 觀光史에 빛날 「環太平洋觀光의 時代」가 멀지 않아 올 것으로 본다.

觀光은 文化的 相互作用과 交換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媒介物이기 때문에 장차 太平洋共同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圈內의 각국 사이에 존재하는 障壁을 제거함으로써 構成員들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觀光이 그러한 媒介物로서의 機能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圈內의 各國政府가 觀光産業에 대한 支援態勢를 보다 더 강화하고, 圈內외의 人的 交流를 확대할 수 있는 措置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濟州道와 하와이州는 다같이 오랫동안 大陸에서 멀리 떨어져, 역사적으로 소외된 地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 文化的, 生態學的인 同質성을 오늘날까지 많이 보존하고 있으며,本土와는 달리 유익하게 海洋的이며 太平洋의인 特質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각자의 立地的 條件으로 말미암아 각기 相異한 文化的 交叉點에 위치해 있으면서 大陸文化和 海洋文化를 연계시키는 役割을 다함으로써 文化的 相互作用과 交換에 기여해 왔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濟州道와 하와이州는 太平洋時代에 있어서도 韓國과 美國이 太平洋圈내에서 다른 國家들과 연계할 수 있는 文化적 고리로서의 役割을 다할 것으로 보는 바, 그러한 文化的 連繫는 北方의 大陸文化에 뿌리를 두고 있는 韓國이나 西歐文化에 뿌리를 두고 있는 美國에게 太平洋進出에 귀중한 礎石이 될 것이다.

濟州道와 하와이州는 다같이 異國的인 情緒와 天惠의 自然環境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工業化의 길을 추구하지 않고 그 대신 觀光振興에 힘쓰고 있다. 觀光은 이들에게 알맞은 產業部門으로서 住民의 文化的 生活水準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文化的 相互作用과 交換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方法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開發事業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들이 갖고 있는 同質성과 特質을 결코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觀光開發은 이들이 간직하고 있는 귀중한 特性을 뺏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韓國이나 美國이 太平洋 文化共同體와 제휴할 수 있는 基盤을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끝으로 말해 줄 것은 濟州道와 하와이州와의 關係는 未來를 향한 새로운 太平洋關係이며, 각자가 자체적인 開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협력한다면 太平洋時代에 있어서 文化的 連繫는 강화될 것이며, 太平洋時代는 汎太平洋圈을 향해 열릴 것이다.

參 考 文 獻

- 韓國觀光公社, 「太平洋觀光의 現況과 展望」, 觀光情報 200 호, 1986.
- 韓國觀光公社, 「太平洋圈 旅行業의 將來」, 觀光情報 189 호, 1986.
- 權 泰 俊, 「아시아·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濟州道와 하와이」, 濟州大學校 社會發展研究所, 社會發展研究 第3輯, 1987.
- 趙 文 富, 「太平洋時代に 있어서의 濟州道의 位置와 그 開發方向 摸索」, 濟州道·濟州大學校 社會發展研究所, 第2回 國際學術세미나, 1987.
- 金 在 洪, 「太平洋時代가 열리다」, 東亞日報社 創刊 68 돌 國際學術세미나, 1988.
- 韓 昇 洲, 「太平洋時代— 도약과 시련의 새 地平」, 東亞日報社 創刊 68 돌 國際學術세미나, 1988.

SUMMARY

A Prospect of the Pacific Area Tourism and the Role of
Cheju and Hawaii in the Pacific Era

Tae-young Kim

Associate Prof., Cheju Junior College

It is often said that the coming 21st century will be a Pacific century. Is it believable that the Pacific century will come round as dominantly as the Mediterranean and the Atlantic century had been recorded in human history? In line with this question, this paper will examine the following issues.

- 1) If the Pacific era comes round, in what way will the tourism be developed in the Pacific area?
- 2) What will the tourism contribute to the formation of a Pacific Community which will emerge in the future?
- 3) Finally, as a companion in the emergence of a Pan-Pacific area, what role will Cheju and Hawaii play? This issue will be examined from a point of view of the past historical experience.

It seems that the historical initiative which the Atlantic countries have enjoyed will be moved to the hand of the Pacific countries in the 21st century, along with a gradual shift of international economic center from the Atlantic to the Pacific. A basic reason for this point of view is that the Pacific countries show a remarkable increase in national income owing to a rapid industrialization and/or their position in terms of population in international setting. However, a more important sign is that the Pacific countries began to surpass the Atlantic countries in the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of course, true that cultural homogeneity or common identity is additionally necessary for the emergence of a Pacific community. Unlike the case of the European community, there are a lot of difficulties in conceptualizing the Pacific countries to be a community, because of a wide range of their heterogeneity in terms of racial background, religion, culture, and level of national income, etc. In other words, the increase in the economy of the Pacific countries is not a

sufficient indication representing the emergence of the Pacific era, but may be a good indicator. From a point of view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weight which the Pacific countries have developed recently, it is no doubt that the Pacific era is coming round, and that the Pacific will be an significant center of history.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Atlantic countries as a group are still superior to the Pacific countries in the market share of international tourists. Nonetheless, the growth rate of the tourists on the Pacific is highest and tourism industry in the Pacific area emerges as a significant factor creating a new demand. These signs seem to be a good indication representing that the era of the Pacific rim tourism, which will remain long in the history of tourism as the Mediterranean and the Atlantic era had enjoyed, is near at hand

Tourism is an effective and efficient medium of cultural interaction and exchange. This implies that the Pacific rim tourism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improvement 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Pacific countries. However, in order for the Pacific rim tourism to perform a function of the cultural medium, each government in the Pacific area should support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dustry. In addition, each government should take a step necessary for expanding personal exchange between in and outside the Pacific area.

Geographically, Cheju and Hawaii islands are both away from continent. Historically, this geographic condition has caused the islands to be alienated. The two islands still keep their cultural and ecological peculiarity and an oceanic and Pacific characteristic, all of which are useful tourism resources. Also, the geographic location of the two islands has enabled them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cultural interaction and exchange, connecting the continental culture with the oceanic culture. In these respects, it is beyond dispute that Cheju and Hawaii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a cultural ring in connect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th other Pacific countries even in the coming Pacific era. Such a cultural connection seems to be a valuable base for Korea rooted in a continental culture, as well as for the United States based on a western culture.

Cheju and Hawaii are emphasizing the development of tourism rather than industrial development. It is because the two islands keep an exotic mood and natural environment favored by nature. Tourism is an appropriate industrial sector for both Cheju and Hawaii. For the two islands, the tourism industry not onl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standard of living, but also will provide one of the most effective channels to perform cultural interaction and exchange. In this context, however, what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is that development planning should be promoted without destroying the peculiarity of the two islands. If not so, the development will result in a fruitlessness and eventuall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lose the base of the Pacific cultural community.

Finally, it should be admitt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heju and Hawaii is a future-inclined Pacific relationship. Their mutu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ir own development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ultural relationships in the coming Pacific era, and then, the Pacific era will be headed towards the formation of a Pan-Pacific community.